



3월 18일(월) 오후 7시 30분, 삿포르신학교 학교장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를 초청해 순복음동경교회 대성전에서 삿포르신학교 졸업식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를 참고)



告知

선교여행 함께 할 성도를 모집합니다.

2024년 일본선교 및 세계선교 일정이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모집 중인 일본선교여행이 있으니 희망하시는 분은 교구장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선교

세계선교



목차

- P2 : 삿포르신학교 제1기생 졸업식예배
- P2 : 홋카이도선교 삿포르성전 축복성회
- P3 : 최용우 목사 신년축복성회
- P4 : 간증성회
- P4 : 세계선교 대만 신생명교회 축복성회

가족신문은 Web페이지와 LINE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Web페이지

공식LINE



삿포로신학교 제1기생 졸업식예배 2024.3.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 사도행전 1:8 —



이영훈 목사는 ‘내 증인이 되리라(행 1:8)’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며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비결을 ‘성령충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권능을 받고 우리들의 체험을 그대로 전하면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일본에 800만개의 우상이 존재한다고들 하는데 그만큼 악령이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본 복음화가 쉽지 않은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 설립은 첫번째 전도이면서 부흥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성령충만이란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성령충만받고 권능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고 축복했습니다.

삿포로신학교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는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인사말을 통해 신학교설립부터 1기생 졸업에 이르기까지의 일화와 졸업생을 위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과 이영훈 목사님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실한 점’, ‘시간을 잘 지키는 점’, ‘겸손한 점’,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자세’, ‘기도’, ‘성령 충만한 점’ 입니다. 설교를 잘하는 목회자가 아닌 예수님으로 충만한 설교자가 되기를, 그리고 커리어있는 목회자가 아닌 성도분들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기를 바랍니다.”라며 뜨거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정일 목사(삿포로성전)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는 삿포로신학교의 교수진들이 예배위원을 맡아 아와야 신교 목사(삿포로그리스도성찬교회)가 대표기도를, 후쿠모리 요시노부 목사(나요로성서그리스도교회)가 성경 봉독을, 오사카 타로우 목사(아마테초교회)가 격려사를 했습니다. 또 엄진용 목사(기하성 총무)와 성태환 장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선교위원장)가 축사를 전하며 졸업생을 축복했습니다.

일본선교를 위해 택함받은 4명의 졸업생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하며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홋카이도선교 삿포로성전 축복성회 2024.2.11-13

2월 11일(주일)~13일(화), 홋카이도선교회를 중심으로 순복음동경교회 선교단이 홋카이도를 방문해 삿포로 성전에서 축복성회를 드렸습니다.

성회 첫 날 :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후략)

— 시편 23:1-3 —

2월 11일 오후 7시,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환경을 보면 절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일수록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환경에 부족함이 없고, 평안의 푸른 초장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 한 체험은 말씀을 믿는 자에게만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인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꿈이 성취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회 둘째 날 :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후략)

— 요한복음 20:30-31 —

2월 12일 오전 11시,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수많은 기적 중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7개의 기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적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구세주란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참다운 만남을 통해 놀라운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삿포로성전에서는 노방전도를 비롯해 한국어교실과 음악회 등을 통해 복음을 전하며 많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이 더욱 부흥되어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최용우 목사 신년축복성회

2024.1.3-5

2024년 1월 3일부터 5일까지 최용우 목사를 초청해 3일간 신년축복성회를 열었습니다. 최용우 목사는 1997년부터 약 4년간 순복음동경교회의 제 8대 담임목사를 역임하였고, 현재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오산리기도원 부원장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성회 첫 날 : 신앙생활의 새 역사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후략) — 이사야 43:18 -21 —

1월 3일(수), 최용우 목사는 '신앙생활의 새 역사'라는 주제로 설교를 전했습니다. "새해에 앞서 우리들의 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신앙을 발전시켜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에 만족하게 되면 점점 쇠퇴해 갑니다. 지난 과거의 성공은 잊어 버리고 과거의 실패는 회개하고 극복하여 새로운 도전을 하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 주십니다."라고 전하며 2024년에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성경말씀을 통해 강해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정결해지고 발전하여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축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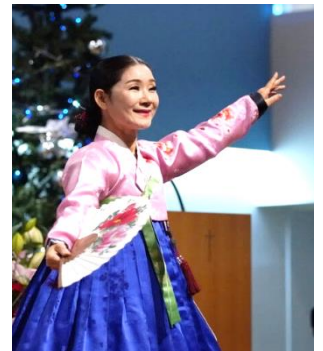
성회 둘째 날 : 꿈꾸고, 기도하고, 말하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대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후략) — 욥기 33:23-30 —

1월 4일(목)에 열린 성회 둘째 날에는 '꿈꾸고, 기도하고, 말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욥의 시련과 부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사차원의 영성의 핵심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지금 성공을 하고 있고 일이 잘 풀리고 있다 하더라도 마귀의 참소와 공격으로 인해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연약함에 대해 먼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중보자가 없는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의 죄를 통해 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의지해 회개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 믿음을 갖고 꿈꾸고, 기도하고, 말하십시오. 그러면 욥의 몸을 어린 아이같은 몸으로 부활시키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역사해 주십니다."고 말하며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을 격려했습니다.



성회 마지막 날 : 손들고 이긴 전쟁

(전략)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 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 출애굽기 17:8-13 —



성회 마지막 날인 1월 5일(금)에는 '손 들고 이긴 전쟁'을 주제로 설교하며, 우리들의 세상 일은 영적 싸움이란 것을 강하게 인식하고 마귀를 제압해 승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영적 전쟁이란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마귀들에게 공격 당하면 먼저 회개하여 죄의 더러움을 깨끗이 하십시오. 마귀에게 대적하면서 박해하는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인내하면 승리하게 됩니다."라고 전하며,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순복음동경교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을 지탱한 아론과 훌처럼 영적 지도자를 잘 받드는 성도들이 되어 순복음동경교회의 복음사역이 더욱 강해져 일본 일천만구원이 꼭 성취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간증성회

2024. 3.20

3월 20일(수, 축일) 11시, 찬양과 간증이 넘치는 간증성회가 열렸습니다. 베들레헴 성가대를 중심으로 한 성가대의 특별찬양과 성도들의 간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성회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2명의 성도가 각각의 기적체험을 통해 신앙의 동역자의 중요성과 중보기도의 힘에 의한 치유 그리고 고난체험은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었음을 간증했습니다.



1. 심신의 고통으로부터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 (하마노 타쿠야 성도)

시온성가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하마노 타쿠야 성도는 학업을 비롯한 환경의 고통과 심각한 심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그때 그 시련 속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된 일과 병에서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3일간 금식기도하며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라고 격려해준 신앙의 선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영적으로 지탱해 준 성가대원 동료들이 있었기에 믿음이 싹트게 되었고, 하나님께 무거운 짐을 맡기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2. 선교여행 중 병의 발현과 치유체험 (권우영 성도)

홋카이도선교회에서 활약하고 있는 권우영 성도는 2월 삿포로선교 중에 극도의 어지러움과 손발저림, 구토와 호흡곤란으로 병원에 긴급 이송될 정도로 심각했던 병이 회복된 체험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통상 회복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병이 하루만에 완전히 회복되어 선교 여행의 모든 일정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과 같은 시간에 삿포로성전에서도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 그리고 담임목사님께 받은 치유기도 덕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의 간증메시지

마지막으로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있기까지의 과정, 하나님께 받은 조용기 목사와의 세계 선교 꿈, 그 꿈을 실현시킨 4차원의 영성체험, 아내의 중증 결핵의 치유 등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도와 치유와 역사하심을 전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첫걸음은 예배 중심의 생활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현할 수 없을 것 같은 꿈도 반드시 성취되고, 병도 반드시 치유된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세계선교 대만 신생명교회 축복성회 2024.1.9-10

대만 타이페이 신생명교회 (New Life Church) 주관으로 개최된 영성훈련집회 및 축복성회에 시가끼 시게마사 담임목사가 대표로 참가하였습니다.



1월 9일 오후 7시 30분부터 신생명교회에서 영성훈련을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신생명교회의 리더 약 500명이 모인 훈련집회에서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는 수많은 이적으로 증명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약 3시간에 걸쳐 영성훈련과 복음전파 사역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1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HILIM HOTEL 연회장에서 열린 축복성회에 대만의 저명한 목회자 25명과 성도 750명이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회 후에는 칠순을 맞이하는 신생명교회 구치윤 주임목사의 고회연 및 성역 40주년 행사가 열렸고, 시가끼 시게마사 목사가 축사를 전했습니다.

1996년에 창립된 신생명교회는 처음에는 11명으로 시작되었지만 청년 중심으로 일어난 성령운동으로 부흥이 되어 지금은 대만 복음선교에 불가결한 대형교회로 성장했습니다. 현재도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대만 전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에도 동일한 성령운동이 일어나 대만에도 견줄 수 있는 복음화가 이루어 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